



공양 받으시고 맑은 세상되도록...

은해사 거조암 나한재 봉행 현장

10월 22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 산내암자 거조암에서 고려 말 이래 700년 동안 단절됐던 나한재가 복원 봉행했다. 정법의 시대에는 불교를 지키고, 말법의 시대에는 불자들의 복전(福田)이 되어 열반의 과보를 얻게 한다는 나한 사상이 현대와 같이 복잡

하고 혼란한 시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조암 원주 현소 스님은 "소임을 맡은 후 성불의 인연 지어지기를 발원했을 뿐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한대재를 복원,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 은해사 거조암이 700여년만에 나한재를 복원, 10월 22일 전국의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700여년의 세월을 넘어 나한대제가 처음 봉행된 10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거조암 영산전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오색천이 드리워진 영산전은 유난히 청명한 날씨 속에 떨리는 듯 서 있고, 거조암은 시끌벅적 잔치분위기가 고조됐다. 나한대제를 준비하는 거조암 스님들은 좌복(방석)을 나르고 돛 자리를 깔며 마지막 점검에 더욱 정성을 들였다. 마당 곳곳에는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대구 경북 곳곳에서 온 다도회 불자들이 차와 다구 공양물을 준비함에 빈틈이 없다. 묘사채 한 칸에는 정갈히 쌓여 있는 526개의 공양상이 눈길을 끈다.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나한님들의 공양상이다. 상 위에는 공양물을 올릴 수 있도록 촛대, 향로, 꽃병, 찻잔, 다기가 놓여있다. 영산전에서는 각양각색의 불자들이 밤, 대주, 사탕 등 갖은 공양물을 한 분 한 분 나한에게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밝히며 팔공산까지 왔을까? 526위 나한의 모습만큼이나 불자들의 마음도 다양하다. 서울 방화동에서 온 변영보(61)거사는 "그저 아라한 공부를 득해 아라한처럼 되고 싶을뿐"이라고 발원했다. 서울 구룡사에서 온 장갑인(72) 보살은 세 아들의 건강을 바랐다. 경북 하양에서 온 김상현(하주초등 6년)군은 알뜰히 모은 용돈 2천원을 어느 나한에게 올릴까 고민중이다. 소원은 오직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것

700여년만에 복원, 526개 공양상 눈길 불자들 육법공양 동참, 백포행다 시연도

오전 10시, 영산전 앞에서 자비와 평화를 위한 거조암 나한대제가 은해사승가대학원 한복 스님의 사회로 봉행했다. 은해사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은해사 부주지 선광 스님, 영천군 손이승군수 등 700여 대중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법회, 작법회, 축하음악회 등 3부로 진행됐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나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부처님처럼 번뇌를 버리고 해탈 열반에 이르러 맑은 정신세계를 누리게 된 분들이다. 오락야채라 일컫는 요즘, 인류사회를 맑힐 수 있는 나한 정신을 본받자는 의지가 나한재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나한처럼 한 생각을 맑게 할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전 11시, 세련의 범종소리와 함께 장애와 마구니를 범접 못하게 하는 신중작법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상단권공이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장 인묵 스님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스님에 의해 봉행됐다.

나한대제의 하이라이트는 나한육법공양. 현암다례원 불자들과 거조암 다도회원들에 이어 일반 불자들이 동참했다. 공양상을 공손히 받쳐 든 불자들은 줄을 지어 영산전으로 향했다. 공양상에는 지혜와 희생, 광명, 찬탄을 상징하는 등이 밝혀졌고, 희생 화합 공덕을 상징하는 향이 타올랐다. 또, 수행, 장엄, 찬탄을 상징하는 국화꽃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일, 청량한 부처님의 법문을 상징하는 차,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쌀이 정성껏 올려졌다. 육법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모습과 마음이 어느덧 나한을 닮았다. 700년 만에 육법공양을 받은 해탈존자는 그저 히죽히 웃고만 있다. 우두커니 턱을 괴고 앉은 달명성 존자는 묵묵히 지켜만 보다가 싶다. 이처럼 526위 나한들이 제각각 천진면목을 드러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없이 전하고 있다. 천년을 넘도록 쉽없이 이어온 가르침이 오늘에야 보이는 것은 법을 보고 듣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한육법공양에 동참한 불자들은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영광이다"는 말로 소감을 표현했다. 현암다례원 권영숙 원장은 "특별히 땅과 하나 되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땅에 백포를 깔고 하는 백포행다를 시연했는데, 감격스럽고 부처님 전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소 스님은 "모든 동참대중이 당장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해탈 성불의 인연이 되길 바랄뿐"이라며 "나한대제가 매년 영천시의 행사로 이어가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다면 3년에 한번이라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어가려는 뜻일까? 유난히 청명하고 차가운 날씨 속에 이어진 나한대제는 유랑예술단의 가무악연주,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수석 박은하의 최후 공연, 인드라 예술단의 경기민요, 풍물 등으로 오후까지 이어졌다.

영천/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불자들이 나한 한분 한분에게 공양을 올렸다.

나한은 어떤 분?



번뇌 끊고 해탈 경지 오른 성자 불법 수호토록 수기 받은 분들

나한은 아라한의 약칭으로 번뇌를 끊고 해탈(解脫)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를 뜻한다. 부처님 열반 후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이세상의 불법을 수호하도록 수기 받은 분이다. 응공(應供) 응진(應眞)이라고도 부르는데, 응공은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응진은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라는 뜻이다.

거조암 영산전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와 부처님의 또다른 열여섯 제자인 16성중,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설법내용을 정리하기위해 모인 5백 나한을 더해 모두 526위의 나한이 모셔져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맑고 순수한 천진면목을 드러내며 고승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부류의 사람, 다양한 공부(잡구)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나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불성을 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무욕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나한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이가 누리도록 양보한다고 한다.

거조암은?



해림법사 법화화상이 창건 보조국사가 정혜결사 한 곳

경북 영천군 청명면 팔공산 거조암은 진평왕 13년(519) 해림법사(慧林法師)와 법화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영산전과 526위의 나한이 모셔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한기도 도량으로 오랜나한 절이라고 불리며,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스님이 고려불교를 확산하기 위해 정혜결사를 시작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고려 우왕 원년(1375)에 건립된 영산전(국보 제14호)은 몇 안 되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 중 하나로 나라의 보물이다. 영산전은 부처님이 영축산(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설하고 계신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를 모시기 위해 특별히 지은 법당이다.

불경, 금책, 금병풍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래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제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들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뱃속 깊숙이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침선도 하시는 분 ● 허약한 해외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는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칙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임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 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